

□ 학제적 연구와 교육

본 과는 인간과 정보망 양쪽을 포섭하는 고성능의 통합인지시스템을 실현하는 것을 지향한다. 여기에는 인간과 기계 양자 사이를 연결함에 있어, 초고속망을 가설하는 것에 비유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에는 두 개의 기둥을 기반으로 하는 학제적 연구가 요구된다. 그 하나는 인간 쪽에서 접근해가는 인지공학이며 다른 하나는 컴퓨터 쪽에서 접근하는 지능적인 지식처리이다. 인간 쪽에서는 인지과학과 인간의사결정의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고 컴퓨터 지능 쪽에서는 지식모델링과 지식처리, 데이터마이닝, 기타 인공지능 기법들을 원만히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이런 다양한 부문들은 HCI(인간-컴퓨터 상호작용)적 설계와 시스템 공학적 원리로 통합되어야 한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하여서, 본과의 교육과 연구는 다섯 부문으로 정리되어 있다. 즉 (1) 인지과학과 의사결정, (2) 지능적 컴퓨팅, (3) 인간-시스템 상호작용 (4) 지식기반 시스템공학 (5) 지식서비스 시스템의 다양한 패러다임이다.

□ 적용분야

학문분야로서는 새롭지만, 지식서비스라는 분야는 산업계에서는 이미 새로운 경향으로 자리잡고 있다. OECD에서는 지식집중적 기업서비스(KIBS)라는 것을 정의하여 “전문적 지식에 의존이 강한 서비스로서, (1) 재화 그 자체가 정보원으로서 사용자에게 지식이 되는 것이거나 (2) 지식을 사용하여 생산한 서비스가 사용자 측에서는 중간재가 되어 그들 자신의 지식 생산과 정보 처리에 연결되는 것”이라 기술하고 있다. 이것은 바로 본 학과 연구와 교육의 적용 분야의 정의라고 받아들여도 된다. 한국 정부도 지식서비스산업을 이와 유사하게 정의하여 7대 신성장 동력의 하나로 지정한 바 있는데, 그 분야들은 금융, 교육훈련, 헬스케어, 컨설팅, 엔지니어링, 광고 및 전시, 스마트 물류, 그리고 IT서비스와 콘텐츠 서비스 등을 포함한다. 이 분야들이 바로 지식서비스공학의 직접적 대상 적용분야라 할 수 있다.

□ 학과 현황

2009년 8월 현재 이미 5명의 전임교수가 부임하였으며 그 대부분이 국제적으로 초빙된 외국인 교수이다. 2009년부터 강의가 시작되었으며, 모든 학과 교육은 영어로 진행된다. 현재는 석사 과정과 박사 과정이 개설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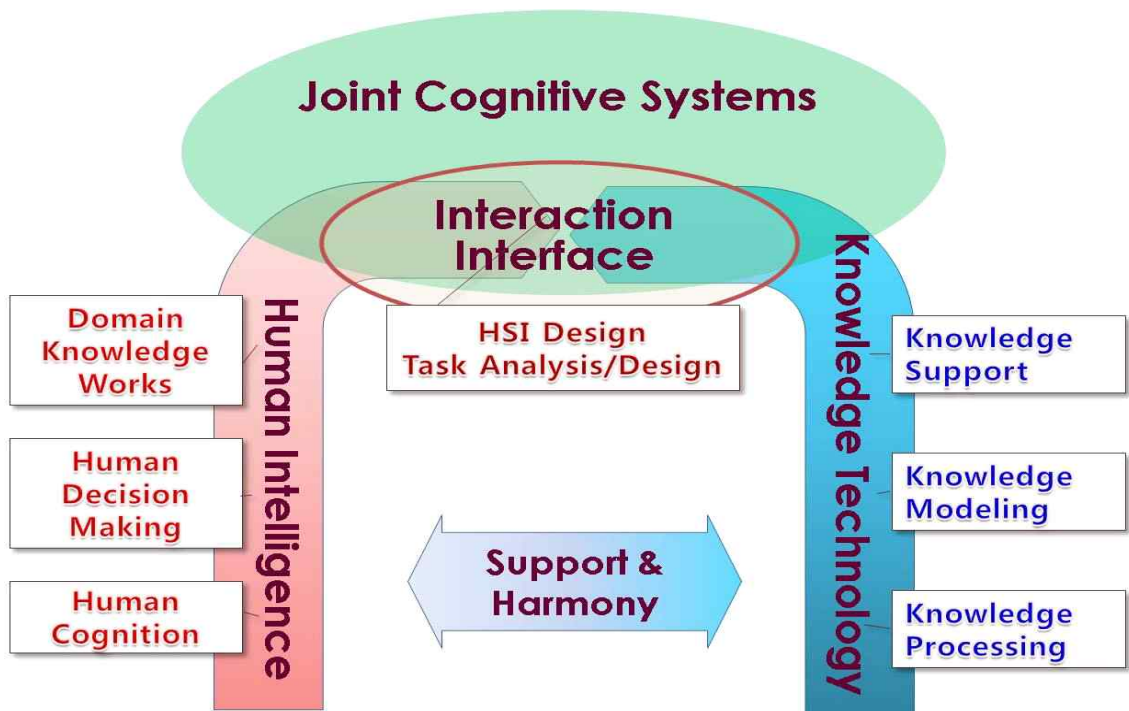


그림. 지식서비스공학의 학제적 구성